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명진	학번	■■■■■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5. 1. 17(토) ~ 2. 13(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파견대학은 마닐라에 위치해있고, 필리핀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라도 들었다. 그만큼 수도인 마닐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학생들의 자부심도 높아 보였다.</p> <p>slc어학원은 마닐라에서 조금 떨어진 수빅에 위치해 있다. 수빅은 필리핀에서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뽑힌다던데 정말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은 장소였다. 학원 규모는 생각보다 크고, 식당,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있어 편리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갈수록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들어와 가끔 소란스럽기도 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크게 1:1수업 4시간, 그룹수업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대일은 필리핀 선생님과 일대일로 대화하고, 수업을 하는 것이었고, 그룹수업은 나와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었다. 분반은 첫 날 레벨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레벨을 토대로 과제나, 수업교재, 수업내용 등이 조금씩 달랐다.</p> <p>선생님들은 모두 열정이 넘치셨고, 학생들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어 주셨다. 수업준비 역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수업내용 자체에는 아쉬운 점이 없었다. 또, 어쩌다 수업내용 외에 사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될 때에는 먼저, "우리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될까?" 하고 물어볼 정도로 수업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첫 번째 액티비티는 현지인 선생님들과 수빅, 메인게이트 주변을 돌며 수빅투어를 진행했다. 처음으로 가 보는 곳이라 생소할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돌아보니 훨씬 재미있었다.</p> <p>그 이후 주말부터는 우리끼리 투어를 나갔다. 우리는 바다를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두 번 모두 예쁘고, 놀기도 좋아 만족스러웠다. 처음으로 갔던 바다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아쉬웠지만 재밌게 놀았으니 후회는 없었다. 앞으로 더 잘 알아보고 놀러가야겠구나 생각을 했다.</p> <p>가격은 현지에서 알아보고,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보고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또, 현지인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p> <p>마지막 주말에는 개인적으로 룸메이트들 그리고 친한 언니들과 호텔 수영장을 다녀왔다. 300페소로 시간제한 없이 놀 수 있고, 그 안에 식사와 음료까지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 놀러다니는 곳 중에서 가격대비 가장 좋았던 것 같다.</p> <p>나는 처음에 100달러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고 하셔서 조금만 챙겨갔는데 가서 카드에서 뽑으니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 아까웠다. 차라리 한국에서 달러로 많이 뽑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개인이 쓰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0만원 정도 달러로 가져가면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상 더 필요할 땐 카드에서 뽑아쓰는 것을 추천한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는 한국보다 덥긴 하지만 건기라 비가 안 오고 습하지도 않아서 좋았다. 그러나 날씨 탓에 벌레가 많아 불편했다. 모기도 너무 많고, 거미도 많고, 도마뱀도 많아서 조금 무서웠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필리핀에 간 이후 계속 한인 사망에 관련된 사건이 터져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 하지만 내가 있던 수빅은 타 지역보다 안전한 지역이라고 한다. 나도 살아보니 그런 것 같다. 확실히 마닐라보다 조용하고, 안전한 느낌이다. 그래도 본인이 본인 안전에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숙사 시설이 생각보다 좋았다.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방마다 냉장고도</p>

	비치되어있다. 분위기 역시 좋았다. 밤마다 비는 강의실에선 그룹스터디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함께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시간 맞춰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아침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식으로 제공되어 입에도 잘 맞았다. 나는 특별히 물갈이 같은 것도 없어 식사를 잘 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시내에 나갈 때는 택시나 버스를 타거나 했다. 버스는 메인게이트에는 많지만 학원 앞은 잘 안지나가서 그 날 그 날 복불복이었다. 어떤 날은 5분 만에 타기도 했고, 어떤 날은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린 적도 있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34,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쇼핑	약 40만원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주말 액티비티를 갈 때 현금을 쓸 일이 많았는데, 현지에서 인출하는데 수수료가 많이 들어 아까웠다. 한국에서 달러로 미리 여유 있게 챙겨가서 현금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벌레가 많으니까 약이나, 모기향 같은 것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p> <p>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이어리를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매일 수업만 하는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수업도 재밌고, 그룹스터디를 하다보면 재밌는 일도 많다. 주말 액티비티는 말 할 것도 없다. 최대한 많이 기록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기록해 오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p>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실 나는 필리핀어학연수보다 캐나다어학연수를 더 가고 싶었다. 신청도 캐나다를 1지망에 했었다. 그러나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와 보니 필리핀이라도 가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들의 영어 수준도 생각보다 높았고, 영어에 노출되는 것은 어딜 가나 똑같기 때문에 만족한다.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친구들도 얻게 되어 기쁘다. 주말 액티비티도 좋았다. 한국은 겨울이었는데 여름이고, 바다를 가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새로웠다. 나는 일기장을 가져가서 매일매일 일기를 썼는데 항상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아 일기가 매일 길어졌다.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 수업을 해도 재밌고 좋았기 때문에 쓸 말이 참 많았다. 학원에서 본 도마뱀이야기, 벌레, 학원 앞에 찾아오던 아이스크림 아저씨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적어놓았다. 한국에 와서 다시 읽어보니 기록해두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노는 이야기만 했지만 주중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매일 6시 반에 일어나 씻고 아침 먹고 8시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5시까지 총 8교시를 했다. 한 달을 그렇게 생활하니 습관이 된 것 같아 좋았다. 일찍 일어나 공부를 한다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하루를 길게 쓸 수 있어 뿌듯했다. 수업은 주로 말하기를 위주로 진행된다. 영어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갈수록 실력이 느는 것 같아 좋았다. 선생님들과 소통도 점점 잘 되어 갔다.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선생님과 짧게 프리토킹을 하곤 했었는데 그런 부분마저 공부 되었다. 주로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필리핀과 한국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등을 생각해보며 이야기 했다. 또, 가끔은 심지어 서로의 남자친구 이야기, 가족이야기, 겪은 이야기 등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기도 했다. 나는 이런 과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듣기는 잘 하는 편인데 하고 싶은 말이 문장으로 잘 표현되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최대한 말을 하려고 노력할수록 말하기 실력도 늘어갔고, 수다 떠는 것이 곧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계속 sns등으로 선생님, 친구들과 연락하며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어학연수를 같이 갔던 학생들끼리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영어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도 시간이 맞는다면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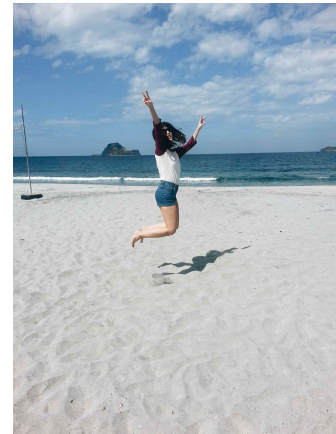
첫 날 수빅투어 갔을 때 모습.
현지 선생님과 울롱가포 주위를 놀며
현지의 모습들을 구경했다.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대학교.
필리핀대학교 학생들과 짝을 지어
액티비티를 진행했다. 먼저,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게임을 하며
친해졌다.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엔 서로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공유하며 계속
연락하자고 이야기했다.



길거리 음식
친구들과 주중에 나가 길거리 음식을
경험해보았다. 새로운 음식에 도전한다는
것이 겁이 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먹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내
먹어보았다.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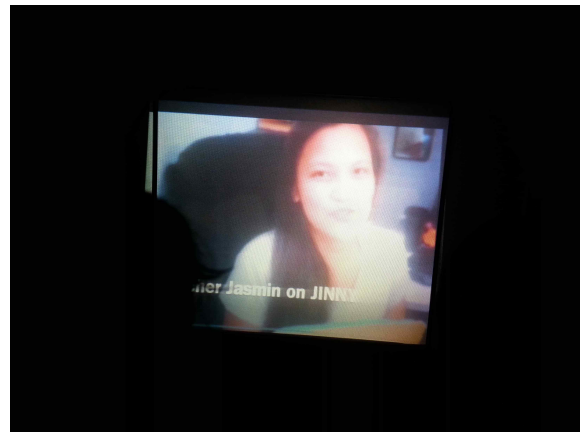


푼다킷 해변
처음으로 모든 학생들이 함께 나갔던
액티비티. 푼다킷 해변이라는 곳이었다.
학원에서 약간 멀긴 했지만 날씨도 좋고
물도 맑아서 놀기 좋았다. 섬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놀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또, 바다 중간에 나가 스노쿨링을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크리스탈 비치

크리스탈 비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가서 더욱 재미있었다. 다 함께 물에 빠져 물놀이도 하고, 게임도 했다. 그리고 식사시간에는 선생님도 함께 요리를 해 먹었는데 정말 잘 챙겨주셔서 기억에 남는다.



졸업식

졸업식 날 학생 한명씩 선생님들이 영상 편지를 써주셨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 따랐던 선생님이 편지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좋았다.